

## 虛白亭 洪貴達 詩의 시세계 연구

— 虛白美가 드러난 作品을 中心으로 —

박 중 순\*

<目次>

I. 緒言	IV. 안빈낙도의 추구
II. 검허한 심중의 독백	V. 結言
III. 유유자적한 삶의 술회	

<국문 초록>

본고는 허백정 홍귀달의 시세계를 구성하는 미학적 중추를 탐색하는 작업이다. 연구 결과, ‘허백’의 의미가 하나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시세계를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허백정이 지은 비명이나 묘지 등은 당시에 이미 ‘문장에 법도가 있다’, ‘곱고도 굳세다[麗而健]’라고 평가되었는데, ‘문장에 법도가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형식을 잘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곱고도 굳세다’라는 것은 표현이 화려하면서도 내용의 전달에 충실했음을 의미한다.

허백정은 조선 초기의 시단에서 사람과와 관각파의 양면을 공유하고 있다. 문형을 지낸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관료문인으로서 격식을 갖춘 전형적인 시문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강호에서 혼자 누리는 자유롭고 고독한 삶을 추구하는 작품도 지었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의 시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허백의 개념을 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그의 시세계에서 중요한 개념

인 ‘虛靜’과 ‘天真’의 이미지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작품을 분석해 본 결과, 검허한 심중의 독백, 유유자적한 경지의 술회, 안빈낙도의 추구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의 시세계가 이러한 미학적 배경에서 형상화되었다.

【주제어】 虛白亭, 洪貴達, 虛白美, 虛靜, 天真

### I. 緒言

본 논문은 虛白亭 洪貴達(1438-1504)의 시문학에 대한 고찰의 첫 번째 과정이다. 허백정의 시세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의 시세계를 구성하는 美學的 中樞를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시를 살피는 중에 그의 雅號이기도 한 ‘虛白’의 의미가 하나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시세계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허백정의 시세계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이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정서로 일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본고에서 허백미를 중시하는 이유는 허백정이 추구했던 ‘虛白’의 정신이 그의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정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虛白美’는 허백정 시세계에서 중요한 영역이면서 동시에 시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문학적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정 하에 허백미가 형상화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결론을 입증하고자 한다.

洪貴達은 字가 兼善이고 號는 虛白亭인데 涵虛亭이라는 호를 쓰기도 했다. 본관은 岳溪이며 직계 조상 중에는 증조 洪淳이 司宰監正을 지냈을 뿐, 관직으로 현달한 사람은 없다. 岳溪는 咸寧, 즉 지금의 경북 상주인데, 그 곳 羊積里에서 1438년(戊午, 세종 20)에 태어났다. 年譜 등에서 전하는 자료에 의하면 넉넉지 않은 소년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허백정은 1460년(23세, 세조 7)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이듬해 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우며 본격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

\* 공주대학교 / sapho82@hanmail.net

하였다. 허백정의 출사 초기에 주목이 되는 관직은 藝文館 應教, 弘文館 典翰 등이다. 허백정의 문장을 높이 평가하고, 장차 文衡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한 인물이 四佳 徐居正이었다. 허백정의 관직 생활은 비교적 순탄하였다.

연산군의 등장으로 허백정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특히 5남 洪彦國의 딸을 궁궐로 보내라는 명령을 거절한 것이 가장 큰 화근이었다. 이로 인해 그는 함경도 慶源으로 유배되어 교살 당했고 中宗反正 후에 신원되었다. 그는 말년에 연산군의 혼정에서도 목숨을 돌보지 않는 선비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절개를 기렸다. 그에 대한 卒記의 일부분을 소개한다.

문장에 있어서는 곱고도 굳세고 법도가 있었으며, 敍事를 더욱 잘하여 한때의 碑銘, 墓誌가 다 그의 손에서 나왔다. 그 정자에 扁額하기를 ‘虛白’이라 하고 날마다 書史를 스스로 즐겼다.<sup>1)</sup>

당시에 허백정의 문장이 높이 평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장은 碑銘이나 墓誌 등과 같은 실용 문장이었다. 그러므로 ‘문장에 법도가 있다’라는 평가는 전형적인 형식을 잘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곱고도 굳세다[麗而健]’라는 말은 그의 문장이 화려한 표현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 내용의 전달에 충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선 초기의 시단은 국가를 건설하는 어수선한 상황과 이어지는 정치적 사건 등으로 인하여 文運을 크게 떨치지 못하였다. 成宗대에 이르러 文治에 힘을 써 文壇의 활기가 회복될 기운이 짙었으나 연산군이 士禍를 일으켜 文儒들을 학대하자 좋은 결실이 나타나지 못하였다. 이렇듯 침체되었던 문단의 분위기는 中宗의 등장한 이후 문인들이 활동하면서

1) 『燕山君日記』, 「10년 6월 16일條」, “爲文章麗而健 有法度, 尤長於敍事 一時 碑銘墓誌皆出其手. 扁其亭曰 虛白, 日以書史自娛.”

일변하였다.<sup>2)</sup> 여기에 한시가 과거제도에서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어 더욱 내실이 다져지게 되고, 성종의 시문학 숭상에 힘입어 비록 士林과 詞章이 갈라지기는 했어도<sup>3)</sup> 융성했던 조선시대 시문학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 시단의 특징으로 宋詩風을 들 수 있다. 고려 중기부터 시작된 송시풍의 영향은 시단을 장악하여 蘇東坡에서부터 黃山谷을 비롯한 江西詩派의 영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황산곡과 함께 강서시파를 대표하는 陳師道의 시집이 성종 무렵부터 간행하기 시작<sup>4)</sup> 사실도 이 시대의 한 특징이다. 이러한 시단의 분위기는 일반적으로 조선 중기에 尊唐論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허백정의 시와 宋詩의 영향관계를 밝힌 업적은 아직 없고, 그의 시에서 唐詩의 영향을 분석해 낸 기존의 연구 결과도 없다. 다만 시대적 배경으로 고찰해 볼 때 그의 시와 송시와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이런 경향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性理學의 수입으로 새로운 감각을 가진 시인들이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 韓國詩가 형성되었다.<sup>5)</sup> 그리고 鄭道傳, 權近, 徐居正, 金時習, 金宗直 등의 대가가 출현하여 시단을 풍요롭게 했다.

허백정은 여러 측면에서 이 시대 시단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허백정의 시를 살펴보면 士林派와 館閣派의 양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sup>6)</sup> 허백정은 당시 관료문인으로서 격식을 갖춘 전형적인 시문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山林에서 혼자 누리는 자유롭고 고독한 삶을 추구하는 작품을 다수 지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의 시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文璇奎, 『韓國漢文學』, 二友出版社, 1982, p.217.

3) 李丙疇, 『韓國 漢詩의 理解』, 民音社, 1987, p.127.

4) 이종묵, 「16-17세기 漢詩史 연구 : 詩風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겨울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p.80.

5) 閔丙秀, 『韓國漢詩史』, 太學社, 1996. 참조.

6) 김용태, 「허백정 홍귀달과 초기사림파」, 『동양한문학연구』 제28집, 동양한문학회, 2009.

허백정의 시문학은 높이 평가받지 못하여 조선조의 평론가들도 허백정의 시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sup>7)</sup> 그러나 조선 초기의 시문을 일차 정리한 『續東文選』에 다수의 작품이 선정되어 있다는 사실<sup>8)</sup>은 허백정의 문학적 역량을 인정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허백정은 昏主 燕山君 시대에 절개를 지키 士林의 존중을 받았으며, 조선 초에 文衡을 담당했던<sup>9)</sup> 문장가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홍귀달에 대한 연구는 시문을 중심으로 몇 개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sup>10)</sup> 기존의 연구 업적들은 허백정 한시의 외적 양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작품 분석을 통한 문학적 특징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허백정의 한시문학을 형성하게 한 구체적인 배경으로서의 미학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주안점이므로 기존의 업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7) 成俔, 『慵齋叢話』, “戶部郎中祈順 與行人張瑾 一時而來. … 盧宣城徐達城爲館伴, 余與洪兼善李次公爲從事官.”; 李濟臣, 『清江詩話』, “洪贊成貴達 有長者命聯, 卽曰 鳥坐花枝 或枝動不動. 識者以或字爲文章氣習.” 등에서 언급한 정도이다. 이밖에 『增補海東詩選』과 張志淵의 『大東詩選』에서 홍귀달의 오율 「廣津舟中早起」를 선정하였다.

8) 五言古詩 2수(「次高城三日浦韻」, 「詠懷」), 七言古詩 3수(「因酒晚起」, 「琴」, 「紀行篇」), 七言古詩 6수(「向日菴卽事」, 「唐津舟中曉起」, 「谷口驛」, 「謫居卽事寄李評事」, 「發寧越向酒泉途中」, 「見牆底水雪未消因以述懷」), 七言律詩 5수(「送安邊府使朴始行」, 「在燕京將還贈書狀」, 「題盤山驛」, 「宿靑石嶺早行途中」, 「乙未二月初八日陪謝恩使赴京宿碧蹄驛」), 五言絕句 5수(「送金直提學勘宜慰日本使者行」, 「奉呈蔡者之三首」, 「慶源烽火」, 「秋懷錄奉國二」, 「泊宿楊根」), 六言 1수(「龍川途中三首」) 등 22題 26首의 시가 선정되어 있다.

9) 李暉光, 『芝峯類說』 卷4, 「官職部·學士」, “蓋國初以來主文者 … 洪貴達 … 凡二十六人.”

10) 권현준, 「허백정 홍귀달의 기문연구」, 경북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하정승, 『演雅體 漢詩 研究 : 15·16세기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31,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2.; 강지희, 「홍귀달 시에 나타난 儒仙의 삶과 虛白에의 지향」, 『한문학보』 11집, 우리한문학회, 2004.; 김창호, 「홍귀달 고유시에 나타는 15세기 후반 관인의 형상」, 『한문고전연구』 16,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김용태, 앞의 논문.

## II. 겸허한 심중의 독백

허백정의 시문학을 허백미의 관점에서 살펴 본 결과 그는 시를 통하여 자신의 겸허한 심중을 가식 없이 토로하였으며, 유유자적하게 보내는 삶의 일면을 슬회하였고, 달관과 깨달음의 경지인 안빈낙도의 세계를 시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의 내면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虛白’이다.

虛白이라는 단어는 ‘虛室生白’에서 유래했는데 그 출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 빈 곳을 보아라. 빈 방에서 밝음이 생겨나니[虛室生白] 吉祥이 머물게 된다[吉祥止也]. 그런데 그치지 않는다면 이것을 坐馳라고 한다. 귀와 눈을 안으로 통하게 하고 마음의 작용[心知]을 밖으로 향하게 하면 귀신도 머물 것이니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이것이 만물의 조화이다.<sup>11)</sup>

오직 평이함과 고요함이 사물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으로 보건대 쓰임은 반드시 쓰이지 않는 것에서 빌려 오게 된다. 이런 까닭에 빈 방에서 밝음이 생겨나니 길상이 머물게 되는 것이다.<sup>12)</sup>

『莊子』와 『淮南子』에서 동일하게 “虛室生白 吉祥止也”<sup>13)</sup>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두 출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허백에 대한 설명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白은 햇빛이 비추는 것이며 室은 빈 마음을 비유함이니 마음을 비울 수 있다면

11) 『莊子』, 「人間世」 第4, “瞻彼闕者 虛室生白 吉祥止止. 夫且不止 是之謂坐馳. 夫徇耳目內通而外於心知 鬼神將來舍. 而況人乎 是萬物之化也.”

12) 『淮南子』 卷2, 「俶眞訓」, “夫噏易且靜 形物之性也. 由此觀之 用也必假之於弗用也, 是故虛室生白 吉祥止也.”

13) 『莊子』에는 “吉祥止止”라고 되어 있는데 끝의 ‘止’는 ‘也’의 誤記이다.(安東林 譯註, 『新譯 莊子』, 玄岩社, 1983, p.180. 참조.)

純白이 홀로 생긴다는 뜻이다.<sup>14)</sup>

『莊子』에서는 허백을 坐馳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데, 坐馳는 몸은 여기에 앉아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내달리는 현상이다. 사람은 귀와 눈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 이것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인데 이를 마음속으로 통하게 하고, 마음의 작용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본래의 역할을 없애버리는 것이니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지에 오르면 귀신이 머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淮南子』에서는 이 경지에 오른 상태를 ‘평이함과 고요함[易靜]’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쓰임은 쓰이지 않음에서 비롯된다는 역설적 해석을 덧붙였다.

정리해보면 虛白은 ‘텅 빈 방에서 밝은 빛이 비추는 것’처럼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사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지향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허백정의 심정을 그대로 형상화한 작품이 있다.

「月夜聽琴：달밤에 듣는 거문고」

虛白亭前秋月明 허백정 앞 가을 달 밝고  
 碧天如水夜涼生 물같은 푸른 하늘 밤에도 서늘하네  
 幽人不寐又無語 숨어 사는 자 잠도 없고 또한 말도 없이  
 坐聽高山流水聲 高山流水의 가락을 앉아서 듣노라<sup>15)</sup>

‘虛白亭’은 홍귀달이 서울 남산 아래의 청학동에 지은 초가삼간의 이름이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99칸의 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자가 많았는데 모두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일화가 전한다. 작은 초가의 나머지를 虛白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高山流水의 가락은 ‘知音’의 고사에 나오는 伯牙가 연주했던 거문고의 곡조이다.

14) 李叔還 編纂, 『道教大辭典』, 巨流圖書公司, 1986, p.553.

15) 洪貴達, 『虛白亭集』卷1, 「月夜聽琴」.

정자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정자의 주인은 스스로 추구하는 이상을 반영하여 이름을 짓는다. 정자의 이름이 ‘허백’이라는 사실에서 이 정자의 주인이 겸허한 심성을 지향하는 사람이며, 그러한 심성을 바탕으로 일생을 살아가고자 했던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시인은 마침 달 밝은 가을날 허백정에 앉아 밤늦게까지 일어나지 못한다. 밤이 깊어지자 낮에는 푸르게 보이던 하늘도 사방의 어둠과 일체가 되어 분간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 時空에서 시인은 잠도 잊고 말도 잊게 된다. 그리고 이 순간 자신의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했던 친구를 위해 거문고를 연주한 백아를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는 세속적 성취에 대한 욕망이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 밤과 가을 달을 배경으로 정자에 앉아 있는 시인의 모습에서 그가 지향했던 경지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지는 겸허한 심성을 갖지 않고는 얻기 어려울 것이다.

「謾成：되는데로 지음」

東牕生白蚤 동쪽 창 벌써 밝아오니  
 獨起坐熹微 홀로 일어나 희미한 가운데 앉네  
 地濕終朝雨 땅은 아침나절 비에 젖고  
 天晴向晚暉 날 개이자 저물녘 햇살 비치네  
 牆頭雞喔喔 담장 위엔 닭 우는 소리  
 簷額燕飛飛 처마 끝엔 제비 나는데  
 自酌三杯酒 혼자 석 잔 술 마시고  
 陶然忘是非 취하여 시비를 잊노라<sup>16)</sup>

민둥이 트는 아침이 되고 아침나절에 내린 비로 앞마당이 촉촉이 젖는다. 그리고 종일 흐리던 날이 저물녘이 되어서야 햇빛이 난다. 그러자 비를 피해 있던 닭은 담장 위에 올라가 울고 처마 끝에는 제비들이 어지러이 오간다. 이 광경은 인위적 가식이 개입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16) 洪貴達, 『虛白亭集』, 『續集』卷1, 「謾成」.

모습이다. 대자연의 자연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장면이다. 시인은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어라 할 말을 잇는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석 잔의 술뿐이다. 그리고 술에 도연히 취하자 세상의 시비를 잊으려 한다.

여기서 세상의 시비를 잊으려는 시인의 마음은 속세의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시의 기본적인 정서는 ‘자연스러움’이다. 이것은 객관적 경물의 자연스러움이기도 하고, 시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연스러움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지도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얻기 어려울 것이다.

「五月日, 移寓彦邦家, 謾成贈沈克孝, 二首: 5월 어느 날 彦邦의 집으로 옮겨가 살다가 문득 생각나는 대로 지어 沈克孝에게 주다, 두 수」

青鶴飛邊住	푸른 학 집 주위로 날아오고
緣崖屋數椽	절벽에 이어진 집 서까래 몇 개
地高偏日月	땅이 높으니 해와 달이 치우치고
天遠足風烟	하늘이 멀어 바람과 안개 풍족하네
冠蓋經過少	벼슬아치는 지나가는 이 적고
軒窗偃臥便	창 아래 누우니 편안하도다
居常無一事	아무 일 없이 그저 살다가
自酌卽頽然	혼자 마시고는 곧 쓰러지네 <sup>17)</sup>

이 시를 지은 시기는 자세하지 않으나,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문집을 살펴보면 이 시 다음에 「贈江原監司李遂初」라는 작품이 실려 있다. 遂初는 李復善(?-1504)의 字인데, 이복선이 강원감사를 지낸 시기는 1502년 무렵이었다. 따라서 연산군의 혼정이 이어지던 허백정의 말년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시 제목에 나오는 彦邦은 허백정의 장남이다. 彦邦의 집에 대한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다. 절벽에 이어졌다는 표현에서 집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시인은 오히려 편안

히 여기며, 집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람과 안개가 풍족함을 느낀다. 저 아래의 세상은 지금 어리석은 임금과 아침하는 신하들이 어우러져 시끄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오히려 높은 곳에 지은 집이 편안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역설이 가능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달리 품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시인은 다만 아무 일 없이 그저 살고 싶을 뿐이다.

시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그저 있는 모습대로 살다가 혼자서 술 몇 잔 하고는 쓰러져 잠들고 싶을 뿐이다. 이와 같은 시인의 의도는 세상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도피라고 말하기도 어려우며 게으른 일상의 반복은 더더욱 아니다. 그저 욕심 없이 마음 비우고 살아가는 것만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허백정의 겸허한 심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紛紛車馬走人寰	복잡하게 수레들 거리를 달리는데
杖藜終窮草樹間	명아주 지팡이로 수풀 사이에서 끝내 궁핍하네
家或清貧非甚病	집이 혹 청빈한 것은 대단한 병이 아니요
心無思慮是真閑	마음에 생각 없으니 이것이 진정한 한가함이다. <sup>18)</sup>

허백정의 겸허한 마음자세는 한가함을 바라는 것으로 차원이 확대된다. 따라서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이 시의 詩語로 사용된 ‘淸貧’의 이미지가 이 시 전체, 나아가 허백정 시 전체에서도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이러한 한가함의 추구는 자연스럽게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허백미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실상이 겸허한 심중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몇 작품에서도 보았듯이 허백정의 시에서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이미지 중의 하나가 겸허함이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에서 허백정은 莊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의 경

17) 洪貴達, 『虛白亭集』 卷1, 「五月日移寓彦邦家謾成贈沈克孝 二首」.

18) 洪貴達, 『虛白亭集』 卷1, 「次良甫韻二首」.

지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세계는 자연스럽게 유유자적한 삶의 술회로 이어진다.

### Ⅲ. 유유자적한 삶의 술회

허백정은 기본적으로 유학을 신봉하는 유학자이면서도 노장적 사유 체계를 갖고 있었다. 여기서 말한 노장적 사상은 구체적으로 莊子의 사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허백정의 사상은 유가와 장자의 사상이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허백정은 장자를 자신의 친구로 여겼다.

#### 「自述 : 혼자 지음」

歸夢尋常洛水濱	돌아가는 꿈 항상 낙동강 가를 찾아
舊居魚鳥與爲隣	옛 집의 물고기와 새가 이웃이네
平生性懶悠悠者	평생 게을러 유유자적 하다가
老境官閑得得身	늙은이에 관직도 한가한 몸 되었네
病不廢詩還是病	병들어도 詩作을 폐하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병이요
貧猶好酒自長貧	가난해도 술을 좋아하니 저절로 더욱 가난하네
無聊世事都拋擲	무료한 세상일을 모두 던져버리니
始信蒙莊我故人	비로소 莊周가 내 친구임을 알겠도다 <sup>19)</sup>

허백정이 이 작품을 지은 시기는 대략 1490년 경, 즉 그의 나이 50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된다.<sup>20)</sup> 이 작품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유유자적함’이다. 시인은 항상 물고기와 새가 있는 고향의 강가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관직에 있으면서도 술과 시를 더 좋아했다. 허백정은 이 작품에서 莊子를 친구로 인정했는데 이를 확대해 보면 허백정 시문

19) 洪貴達, 『虛白亭集』 卷1, 「自述」.

20) 『虛白亭集』을 보면 이 시의 다음에 「送鄭使君誠謹赴忠州牧」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鄭誠謹이 충주목사로 재임하던 시기가 1490년 무렵이다.

학의 미학적 근거가 莊子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시에 잘 나타나 있듯이 허백정은 한가함과 脫俗을 추구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그는 장자와 동류의식을 갖게 되었다. 일생의 대부분을 관직에서 보낸 허백정이 한가함과 탈속을 추구했다는 것은 그의 문학을 관류하는 중요한 정서이다. 莊子에 의하면 한가로움은 근본적으로 ‘靜’에서 비롯된다.

성인이 고요한 것은 고요함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요한 것이다. 만물이 마음을 흔들 수 없으므로 고요한 것이다. 물이 고요하면 수염과 눈썹을 맑게 비칠 수 있고, 수준기가 평평함을 유지하면 대목수가 법을 취하는 것이다. 물이 고요하면 밝음과 같으니 하물며 정신이겠느냐. 성인의 마음이 고요하면 천지의 거울이 되고 만물의 거울이 되는 것이다. 비고 고요하며 편안하고 담담하여[虛靜恬淡] 적막하게 無爲함이 만물의 근본이다.<sup>21)</sup>

장자는 靜을 물[水]의 특징으로 비유했는데, 靜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거울처럼 되어 궁극적으로 만물의 근본이 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장자는 虛靜이라 하여 虛와 靜을 동일시하였음이 주목된다. 虛靜하게 되면 恬淡하게 되고, 다시 寂寞하게 되어 끝내 無爲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無爲는 노장철학에서 최상으로 여기는 개념이므로 장자가 靜을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자는 靜과 虛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 네 개의 여섯 가지가 가슴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바르게 되고, 바르게 되면 고요하게 되고, 고요하면 밝게 되고, 밝으면 비게 되고, 비게 되면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sup>22)</sup>

21) 『莊子』 卷5, 「天道」, “聖人之靜也 非曰靜也善 故靜也. 萬物無足以撓心者 故靜也. 水靜則明燭鬚眉, 平中準大匠取法焉. 水靜猶明 而況精神? 聖人之心靜乎! 天地之鑑也, 萬物之鏡也. 夫虛靜恬淡 寂寞無爲者 萬物之本也.”

22) 『莊子』, 「雜編·庚桑楚」 23, “此四六者 不濫胸中則正 正則靜 靜則明 明則虛 虛則無爲而無不爲也”

장자가 말한 四六은, ‘富·貴·顯·嚴·名·利’와 ‘容·動·色·理·氣·意’, ‘惡·欲·喜·怒·哀·樂’, ‘去·就·取·與·知·能’ 등이다. 이 四六은 대부분의 인간이 희구하는 바이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앨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슴 속에서 요동치지 않으면 마음이 바르게[正] 된다. 이 正이 靜으로 이어지고, 靜이 다시 明과 虛로 발전하는데, 虛의 상태가 되면 아무런 인위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하지 않음이 없는[無爲而無不爲] 절대적인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에서 장자가 말한 明이 白과 상통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sup>23)</sup> 이 논리는 허백미의 미학적 근거가 될 것이다.

장자의 미학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眞’의 개념이다. 美와 眞의 관계는 장자의 미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장자에 의하면 眞을 상실하게 되면 無爲自然의 도를 위배하는 것이 되고 결국 美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儒家와는 서로 다른 審美觀念과 審美理想, 즉 天을 법도로 삼고 眞을 귀하게 여긴다는 ‘法天貴眞’의 이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공적인 조탁을 하지 않는 천연의 美를 숭상하는 것이다.<sup>24)</sup> 중국철학의 문헌 중에서 사용된 眞의 개념은 대부분 ‘誠’과 비슷하다. 『莊子』의 「漁父篇」에 眞을 묻자 ‘정성이 지극한 것이다’라고 답변한 장면이 있다. 그리고 장자는 또한 직접 眞으로 사람을 형용하기도 하였는데 「田子方篇」에 그 사람됨이 眞하다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眞人이다.<sup>25)</sup>

허백정의 사상에서도 眞은 중요한 지향점이었다. 眞에 대한 허백정의 생각이 피력되어 있는 예를 들어 본다.

23) 徐復觀, 『中國藝術精神』, 臺灣學生書局, 1984, p.80, “白即是明.”

24) 李澤厚·劉綱紀 주편, 權德周·金勝心 공역, 『中國美學史』, 대한고과서주식회사, 1992, p.297.

25) 韋政通, 『中國哲學辭典』, 大林出版社, 民國67, p.508, “中國哲學文獻裏所用的眞 大部分是相當於誠 如莊子漁父篇 請問何謂眞 客曰 眞者靜誠之至也 莊子也直接以眞形容人 如田子方篇 其爲人也眞 卽所謂眞人”

손님이 오면 혹 일어나서 예를 갖추고 혹 앉아서 앞에서 부리기도 하며 손님이 편한대로 맡겼다. 술을 들여오면 혹 한 말에도 취하고 혹 몇 되에도 거나하여 자기 기운에 맞출 뿐이니 모두 天真에서 나온 것이었다.<sup>26)</sup>

그러다가 鷄林을 다스리던 삼년간은 공무로 경승지를 두루 지나게 되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의 누대들이 모두 몸과 얼굴을 드러내고 나와 마음을 통하자고 하였으나 나는 그들을 응접할 겨를이 없었다. 그렇지만 내 눈을 스쳐간 천태만상의 物象들은 본뜨거나 흉내 내는 병통이 없어 모두 그 天真이 드러나 있었다.<sup>27)</sup>

지금 두 선생의 시를 읽어 보면 빠는 있는데 고기는 적고 열매는 있는데 꽃이 없어 양념하지 않은 고깃국이나 맑은 물, 토고와 귀부 같은 질박한 악기와 같아서 비록 속인들의 입과 귀에는 맞지 않겠지만 그 담박한 맛과 순박하고 고졸한 음에는 절로 참됨이 담겨 있다.<sup>28)</sup>

상쾌한 숲 언뜻 가 처사의 집 깊은 밤 등불이 개인 물결에 어리네. 작은 물고기 그물로 잡아 滋味를 내오니 天真이 초야에 많음을 또한 알겠네.<sup>29)</sup>

허백정이 인식하고 있었던 진의 개념은 天真이다. 천진은 자연스러움으로 이해된다. 위의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허백정은 인위적 가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眞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眞은 虛靜의 상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이 천진은 본질적으로 허정과 통한다. 허정한 가운데의 지각활동은 감성적이면서 동시에 초감성적이다.<sup>30)</sup>

26) 洪貴達, 『虛白亭集』 卷2, 「天隱堂記」, “客來或起而爲禮 或坐而使前 任其便 酒進 或一斗而醉 或數升而酣 適於氣 皆天真也”

27) 洪貴達, 『虛白亭集』 卷2, 「豐川尉嶺南錄序」, “及尹于鷄林三年 因公事出入河山者殆遍 凡山海樓臺之勝 皆呈身露面 欲與吾謀 而吾不暇應接 則過眼千態萬狀 無模畫奪眞之患 而皆得全其天矣”

28) 洪貴達, 『虛白亭集』 卷2, 「氷玉亂稿序」, “今讀兩先生詩 骨而少肉 實而無華 如大羹玄酒 土鼓蕢桴 雖不適於俗人之口耳 而其淡泊之味 淳古之音 自有其眞”

29) 洪貴達, 『虛白亭集』, 『續集』 卷1, 「林上舍陽舒池亭」, “蕭灑林塘處士家, 夜深燈火蘸晴波. 小魚網得供滋味, 也識天真草野多.”

30) 徐復觀, 앞의 책, p.85, “虛靜中的知覺活動 是感性的 同時 也是超感性的”

따라서 허백미의 기저에는 허정과 천진이라는 장자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虛白亭即事 : 허백정에서」

一枕淸風過午鷄    맑은 바람 속에 누우니 낮닭이 울었는데  
 頽然直到日沈西    쓰러질 듯 곧바로 해가 서쪽으로 지네  
 晚涼吟得閑詩句    저물녘 서늘한 때 한가로이 시구 하나 연어  
 起喚尖奴削木題    일어나 종을 불러 나무 깎아 걸게 하네<sup>31)</sup>

시인은 하루 종일 유유자적하게 지낸다. 하는 일이라고는 맑은 바람 속에 누워 닭 우는 소리나 들으며 하루해를 보내는 것이다. 시인이 하루 중에서 가장 바쁜 때는 문득 얻은 좋은 시구를 기억하려고 종을 불러 나무에 새기는 일이다. 그러나 사실 이 일도 전혀 바쁜 일이 아니다. 시인은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저녁에서야 비로소 일어난다.

허백정은 천생의 시인이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으나 누워서 시를 생각하고 시를 짓는다. 그리고는 저물녘이 되어 시를 완성하고 또한 기록한다. 이 정도라면 굳이 치열한 작가정신을 요구하거나 시대에 대한 고민과 같은 무거운 주제를 강요하는 일도 부질없다. 있는 그대로의 한가함과 느낌의 미학만이 시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그러한 경지를 손수 보여주고 있다.

「感時 : 시절을 느낌」

天街柳色薄如烟    한양 거리 버들빛은 안개처럼 옅고  
 上苑桃花醉欲眠    上苑의 복사꽃은 취하여 잠들려 하는 듯  
 窮巷蕭條車馬少    초라한 골목 쓸쓸하고 찾아오는 수레 적으니  
 閉門高枕過青年    문 닫고 높이 누워 젊은 세월 보내노라<sup>32)</sup>

허백정의 시에 나타난 유유자적함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 작품

31) 洪貴達, 『虛白亭集』 卷1, 「虛白亭即事」.

32) 洪貴達, 『虛白亭集』 卷1, 「感時」.

의 마지막 구절에서 어지러운 세상과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젊은 날의 시인의 선택을 볼 수 있다. 시의 분위기로 보아 관직생활을 시작한 초기의 작품인 것으로 추정된다. 변화한 서울거리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변화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오히려 초라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조차도 없지만 일부러 문을 닫는다.

여기서 시인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시인이 문을 닫고 하는 일은 높이 눕는 것이다. 높이 눕는다는 것은 한가하게 지내는 이미지와 동시에 일종의 고결한 心象을 은연중에 느끼게 하는 표현이다. 이로 보아 시인이 추구했던 느낌과 한가함은 어느 정도 고결함과 통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자신의 天真을 보존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茅廬即事 : 띠집에서」

栢葉炊梁小煖溫    잣 잎으로 기장밥 지으니 작은 온돌 따뜻하고  
 紙窓詩卷日初暎    종이 바른 창 아래 시집 읽다보니 아침 해가 솟네  
 不巾不幘隨吾意    탕건도 버선도 없이 내 맘대로 지내며  
 閑坐終朝道氣存    한가로이 앉아 아침 내내 道의 기운 보존하네<sup>33)</sup>

시인은 유유자적함을 추구하지만 그것과 게으름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비록 탕건도 쓰지 않고 버선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제멋대로 지내지만 한시라도 道를 떠난 적은 없다. 자유롭게 지내면서 道를 간직하는 경지는 아마도 최상의 깨달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起句에서 기장밥과 잣 잎의 이미지도 세속을 초월하여 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범상하지 않다. 그리고 承句에서 아침 일찍부터 손에 시집을 들고 있는 모습 또한 시인의 정신세계의 일단을 보여준다.

시인은 번잡한 예의범절 보다 천진스러운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이다. 시인이 좋아하는 일

33) 洪貴達, 『虛白亭集』 卷1, 「茅廬即事」.

은 시를 읽으며 지내면서 한시라도 道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시인이 유교적 예절을 거부하며, 老莊의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의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지낸다고 해서 禮教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道가 道家에서 말하는 道라고만은 할 수 없다. 시인은 자유롭고 한가하게 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의지가 실제로 일상화 되고 있으며 그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시로 형상화될 수 있는 것이다.

「拙句三絶 奉呈蔡耆之軒右 : 하찮은 절구 세 수를 蔡耆之에게 드림」

吾家地燥未池塘    우리 집은 땅이 마르고 연못조차 없으나  
 尙有茅亭六月涼    초가지붕 정자라도 있어 한여름에도 시원하네  
 日晚朝回山影冷    저물녘과 아침엔 산 그림자 서늘하니  
 松風散髮臥匡床    솔바람에 머리 흩날리며 평상에 눕네<sup>34)</sup>

시의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은 蔡壽(1449-1515)인데 字가 耆之이다. 채수는 경상도 상주로 낙향하여 快哉亭을 짓고 은거하며 말년을 보냈는데, 허백정과 친분이 있었다. 그가 지은 정자 허백정은 주인의 마음과 많이 닮아 있다. 정자는 화려하지 않다. 정자의 주변에는 연못도 없고 좋은 경치조차 없다. 그러나 비록 초가지붕이지만 한여름의 더위를 피하기에는 손색이 없다. 이 정자에 시인은 또 눕는다. 이미 술숲에서 부는 바람에 머리는 헝클어졌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시인은 느릿느릿 움직이고 그 주변에는 한가함이 가득하다.

「次朴良甫韻 : 박간보의 운에 차운하다」

環環流水抱青山    굽이굽이 흐르는 물은 푸른 산을 감돌고  
 新構蝸廬草數間    새로 지은 누추한 집은 다만 초가지집 두어 칸  
 收拾乾坤歸一室    天地를 거두어 집 안에 담았으니  
 留連晚境賸長閑    노년에 머무르며 오래도록 한가함을 누리리라<sup>35)</sup>

34) 洪貴達, 『虛白亭集』 卷1, 「拙句三絶 奉呈蔡耆之軒右」.

이 작품에서 허백정이 추구하는 유유자적함의 실상이 제대로 나타나 있다. 그는 한가하게 지내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노년에 이르러 겨우 새집을 장만했는데 그것마저 두어 칸 밖에 되지 않는 초가지집이다. 처음부터 고대광실에서 살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던 인물이었는데, 그래도 높은 관직을 역임한 시인의 집이 이 정도로 초라하다는 것은 그가 본래 세속적 욕심이 없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비록 세속적인 측면에서는 욕심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큰 차원에서 말하자면 허백정이 욕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작은 초가지집 안에 하늘과 땅을 거두어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푸른 산 계곡 사이로 맑은 물 흐르는데, 그 사이에 작은 초가지집 하나를 짓고 그 곳에 하늘과 땅을 담는다고 표현한 점은 허백정의 정신적 경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래도록 한가함을 누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도 매우 주목된다. 허백정이 추구한 한가함은 저절로 한가해져서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그가 의도적으로 한가함을 추구했었다는 사실을 이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IV. 안빈낙도의 추구

검허한 심성의 소유자로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자 했던 허백정의 내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층 심원한 정신적 경지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곧 達觀을 통한 안빈낙도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35) 洪貴達, 『虛白亭集』, 『續集』 卷1, 「次朴良甫韻」.

「聞咸昌家火, 賦四絕, 寄李安孫士休以遺懷 : 咸昌 집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절구 네 수를 써서 李安孫 士休에게 부쳐 내 마음을 보내다」

一紙鄉書昨日來 한 통의 고향편지 어제 왔는데  
三間茅屋火爲災 세 칸 띠집이 재가 되었다네  
詩書一壁聞猶在 벽 가득 詩書는 아직도 남아 있다니  
口業它年幸未灰 내 작품 다른 날에 사라지진 않겠구나

半世身無宅一區 반평생 내 몸에 집 한 채 없었다가  
前年剪棘卜菟裘 지난 해 가시나무 치고 조그만 집 엮었네  
蝸開尙足容吾膝 달팽이 같은 집 열어보면 내 무릎이나 들여놓겠더니  
酷崇那知有鬱攸 혹독한 빌미로 불날 줄 어찌 알았는가

平生不畜買田資 내 평생 밭을 살 밀천도 쌓아두지 못하고  
數歲躬犁只救飢 여러 해 몸소 씨레질하여 겨우 주림이나 면했네  
稍食幸然餘斗斛 조금 살만하여 다행히 남는 곡식이나마 있었는데  
今隨烟燼亦無之 이제 연기에 다 타서 그마저 없어졌네

樗材合在溝中斷 가래나무도 함께 도랑 속에 부러졌다니  
擬棟明堂計太踈 明堂에 대들보 삼을 계획도 쓸 데 없도다  
莫道歸來無着處 돌아가도 살 곳 없다 말하지 말라  
江天蓑笠卽吾廬 강 하늘에 도롱이가 곧 나의 집이라<sup>36)</sup>

서울에 올라와 관직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히 고향의 집은 비워놓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그 집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소식을 듣고 허백정은 즉시 4수의 7언 절구를 지어 감회를 드러냈다. 이 七絶 4수는 기승전결의 구성을 갖고 있는 한 편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고향집이 불에 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렵사리 장만한 약간의 세간과 곡식마저도 모두 소실되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 시인은 오히려 담담하다.

36) 洪貴達, 『虛白亭集』 卷1, 「聞咸昌家火 賦四絶 寄李安孫士休以遺懷」.

담담한 정도가 아니라 안도하는 모습까지도 보인다. 시인이 그나마 안도하는 이유는 평소애 보던 서책과 자신이 지은 手稿는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 주변에 있던 가래나무도 부러져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목마저 사라져 버렸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마침내 達觀의 경지에 이른다. 훗날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집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강 하늘의 도롱이를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무슨 말을 할 것이 있겠는가. 허백정이 도달한 달관의 경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달관은 바로 안빈낙도의 경지와 일치한다.

「偶吟 : 우연히」

閑窓日日臥題詩 한가한 창 아래 날마다 누워 시만 지으니  
門巷蕭條客散時 문 앞 골목 쓸쓸하고 손님들이 흩어질 때라네  
除却醉鄉無着處 취하는 것 빼고 마음 둘 곳 없으니  
從今身不管安危 이제부터 편안과 위험을 따지지 않으리라<sup>37)</sup>

시인은 처음부터 세상사에 관심이 없다. 날마다 누워 시나 읽고 지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을 뿐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올 자도 또한 갈수록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쓸쓸해지지만 시인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는 다시 술잔을 잡을 뿐이다. 그리고는 한 단계 더 높은 생각을 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편안하기를 바라고 위험한 것을 피하기 마련인데, 시인은 오히려 편안과 위험마저도 구분하지 않는 경지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허백정의 달관과 안빈낙도는 그의 시에서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정신적 경지로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겸허한 마음 자세와 유유자적함에 대한 추구가 끝내는 이처럼 안빈낙도의 경지로 성숙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7) 洪貴達, 『虛白亭集』 卷1, 「偶吟」.

「晝寢 : 낮잠」

日日窓前午睡長    날마다 창 앞에서 긴 낮잠  
此身非愛黑話鄉    이 몸이 낮잠을 좋아함은 아니네  
離家去國三千里    고국 떠나 삼천리  
擬借回飄夢一場    회오리바람 타고 한 바탕 꿈<sup>38)</sup>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북경으로 使行하는 중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허백정이 중국 사행에 나선 것은 1481년(辛丑, 성종 12)으로 당시 나이 44세였다. 고국을 떠나 삼천리 머나먼 이국땅에 있으면서도 크게 외로워 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는다. 고국에 있으나 타국의 땅에 있으나 인생살이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지나가는 한바탕의 꿈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老莊的 허무주의로 보일 수도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인생에 대한 달관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도 낮잠을 즐긴다. 원래 낮잠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이것도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고국에서도 즐긴 낮잠을 타국에서 즐긴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어차피 한바탕 꿈인 인생이다.

「弘治甲子春 余謫來楸城 經數月未嘗一出門 鬱鬱不可堪 一日府主公邀上南門樓 試游目四望 快然如天地初闢 醉後題于壁 時五月二十二日也 : 弘治 갑자년(1504) 봄 나는 楸城으로 귀양살이하러 왔다. 몇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문을 나서지 못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 하루는 부사께서 남문의 누각에서 맞이하기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니 통쾌하기가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던 때와 같았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벽에다 지었다. 때는 5월 22일이다.」

去國一身投絕域    서울 떠난 이 한 몸 변방에 던져지고  
高城五月上南樓    높은 성 남쪽 누대 오월에 오르니  
乾坤納納存雙眼    하늘과 땅을 가져다가 두 눈에 간직하고  
尊俎喧喧失百憂    술동이 도마 소리 떠들썩하니 온갖 시름 없어지네  
賈生不用傷王傅    가생은 장사왕의 사부가 되었어도 마음 상할 필요 없으니

38) 洪貴達, 『虛白亭集』 卷1, 「晝寢」.

子厚何須恨柳州    유자후는 유주의 벼슬살이 어찌 꼭 한탄하리  
底處江山非我有    어느 곳 강산인들 내 것이 아니리오  
古今人世本來浮    고금의 인간세상 본래부터 덧없는 것<sup>39)</sup>

허백정은 이 시를 67세에 지었다. 자신의 운명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때였다. 연산군은 끝내 허백정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임금의 비위를 맞추며 마음 내키지 않는 벼슬살이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생각하고 살던 바를 지속할 것인지, 허백정은 선택해야만 했다. 허백정은 결국 후자를 선택하였고 함경도 땅으로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다. 혼란에 빠진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국면이었다. 마침 고을수령의 배려로 잠깐 동안의 여유를 누리게 된 시인의 감회가 절절하게 나타나 있다. 특히 韻聯의 표현은 감동적인 부분이 있다. 누대에 올라 본 주변의 풍광은 두 눈에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을 정도로 뜻 깊은 것이었다. 어찌 보면 더 이상 이러한 경치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술동이에 서 풍겨 나오는 술 향기와 귀에 가득 도마 두드리는 소리는 온갖 시름을 사라지게 한다는 말은 잠시 죽음의 공포도 잊을 수 있었다는 말로 보인다. 관념적이지 않고 과장되지 않은 진솔한 표현에서 허백정의 문학적 창작력을 충분히 읽어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생각에 잠기다 보니 역사상 좌천되었던 인물의 상징적 존재였던 賈誼와 柳宗元까지도 위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끝내 인생살이가 뜬구름과 같다는 달관의 경지를 회복한다. 서울 땅이나 귀양 온 함경도 땅이나 허백정에게는 같은 땅일 뿐이다. 허백정의 시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시기에 지은 작품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지은 작품인데 이처럼 생사를 초월하는 듯한 달관의 모습이 작품

39) 洪貴達, 『虛白亭集』 卷1, 「弘治甲子春 余謫來楸城 經數月未嘗一出門 鬱鬱不可堪 一日府主公邀上南門樓 試游目四望 快然如天地初闢 醉後題于壁 時五月二十二日也」.

전체에 가득 배어있다.

「感陰晴 : 흐렸다 개었다 하는 날씨에 느낌」

邊城小屋亦堪依	변방의 성 조그만 집도 의지할 만해
坐對茅簷到夕霏	앉아서 처마 끝 마주하니 저녁 안개 자욱하다
風雨移時雲漠漠	비바람 불어 올 때 구름 아득하다니
江天小頃日暉暉	강가의 하늘 잠깐 사이에 햇살이 비치네
人間也自多飄覆	인간세상 절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 많으니
世事無勞問是非	세상사 수고로이 시비를 묻지 마라
得失榮枯要順受	얻고 잃으며 꽃피고 시드는 일 순응함이 중요하니
天工造物有神機	조물주의 조화에는 神機가 있다네 <sup>40)</sup>

작품의 전반부에 귀양생활의 곤고함이 곡진하게 나타나 있다. 혼자 우두커니 앉아 하루 종일 바라보던 처마 끝에 저녁 안개가 자욱하다고 한 것은 시인의 심중에 가득한 고뇌와 번민을 상징적 표현이다. 그러나 한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는가를 반문하는 것은 어찌면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른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는 것이다. 허백정은 ‘순응’하라고 단언하고 있다. 인생 살이의 榮枯盛衰는 어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을 해서도 안 되며 불평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여기에서 끝난다면 체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허백정의 생각은 체념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불행마저 조물주가 부리는 커다란 조화 속의 한 형상인 ‘神機’라고 인식하고 있다.

근궁하나 남의 귀함을 동경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나 즐거움이 그 속에 있으며, 장수하지는 않고 요절하지도 않아서 천수를 다한 뒤에 땅에 묻히는 것이 바

40) 洪貴達, 『虛白亭集』, 『續集』卷1, 「感陰晴」.

로 인간의 참된 모습이다.<sup>41)</sup>

위의 인용은 沈肩文이라는 사람에 대한 祭文에서 허백정이 한 말이다. 주어진 목숨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는 허백정의 목소리가 조용히 가슴에 전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작품은 허백정 시에서 느낄 수 있는 달관의 경지가 가장 잘 나타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허백미를 중심으로 허백정의 시를 살펴보면 대개 겸허한 심성의 독백, 유유자적함에 대한 추구, 달관의 경지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다수 있다. 이러한 세 영역의 시는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정서로 일관되어 있다. 욕심 없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삶을 바라보는 자세는 매우 자연스럽게 느낌과 한가함의 미학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달관으로 완성된다.

## V. 結言

본고는 虛白亭 洪貴達의 시세계를 구성하는 美學的 中樞를 탐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虛白’의 의미가 하나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시세계를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虛白美’가 허백정 시세계에서 중요한 영역이면서 동시에 시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당시에 허백정의 문장이 높이 평가되었는데, 碑銘이나 墓誌 등과 같은 실용 문장이었다. 그러므로 ‘문장에 법도가 있다’라는 평가는 전형적인 형식을 잘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곱고도 굳세다[麗而健]’라는 말은 그의 문장이 화려한 표현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 내용의 전달에 충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허백정은 조선 초기의 시단에서 士林派와 館閣派의 양면을 공유하고

41) 洪貴達, 『虛白亭集』卷3, 「祭沈侯肩文」, “若夫窮而無慕乎人之貴 貧而樂亦在其中 不壽不夭 全其天 沒于地者 是所謂人之真也”

있다. 文衡을 지낸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허백정은 당시 관료문인으로서 격식을 갖춘 전형적인 시문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山林에서 혼자 누리는 자유롭고 고독한 삶을 추구하는 작품을 다수 지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의 시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虛白이라는 단어는 『莊子』의 “虛室生白”에서 유래했다. 虛白은 ‘텅 빈 방에서 밝은 빛이 비추는 것’처럼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사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지향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허백정은 유학자이면서도 노장적 사유체계를 갖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莊子의 사상을 말하는데, 허백정의 사상은 유가와 장자의 사상이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虛白의 개념을 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虛靜’과 ‘天真’의 이미지가 여기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작품을 분석해 본 결과, 謙虛한 심중의 독백, 유유자적한 경지의 술회, 안빈낙도의 추구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의 시세계가 이러한 미학적 배경에서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參考 文獻>

『莊子』 『淮南子』

成俔, 『慵齋叢話』.

李晬光, 『芝峯類說』.

李濟臣, 『淸江詩話』.

洪貴達, 『虛白亭集』, 『韓國文集叢刊』 14, 한국고전번역원.

『燕山君日記』

강지희, 「홍귀달 시에 나타난 儒仙의 삶과 虛白에의 지향」, 『한문학보』 11집, 우리한문학회, 2004.

권현준, 「허백정 홍귀달의 기문연구」, 경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용태, 「허백정 홍귀달과 초기사림파」, 『동양한문학연구』 제28집, 동양한문학회, 2009.

김창호, 「홍귀달 고유시에 나타는 15세기 후반 관인의 형상」, 『한문고전연구』 16,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文璇奎, 『韓國漢文學』, 二友出版社, 1982.

閔丙秀, 『韓國漢詩史』, 太學社, 1996.

安東林 譯註, 『新譯 莊子』, 玄岩社, 1983.

李丙疇, 『韓國 漢詩의 理解』, 民音社, 1987.

이종목, 「16-17세기 漢詩史 연구 : 詩風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겨울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李澤厚·劉綱紀 主編, 權德周·金勝心 公역, 『中國美學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하정승, 「演雅體 漢詩 研究 : 15·16세기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31,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2.

徐復觀, 『中國藝術精神』, 臺灣學生書局, 1984.

韋政通, 『中國哲學辭典』, 大林出版社, 民國67.

李叔還 編纂, 『道教大辭典』, 巨流圖書公司, 1986.

## Abstract

*A study on the poetic world of Heobaekjeong Hong Gwui-dal  
- Focused on the poetry representing Heobaekmi / Park Jong Soon\**

Hong, gwui-dal was a celebrated poet in early Joseon Dynasty. To investigate the esthetic pivot which composed his poem world, we can find that 'Heobaek[虛白]' got settled thereinto. Significance of 'Heobaek' was the source that enabled the creation of poem, which went through his poem world.

Basically he was prepared with the ability to compose typical poem and sentence equipped with formality as bureaucrat literary person at that time. However, on the other hand, he composed a work which pursued free and lonely life to enjoy alone in the nature. This duplicity had a significant meaning in his poetic literature.

The word 'Heobaek' came from 『Chuang-tzu』. The meaning of it was the expression of will to aim for the life which could reveal the nature of an object as it is in the emptied mind state just as 'A bright light shines in an empty room'. When investigating the concept of 'Heobaek' in terms of esthetics, we can see that the image of 'Heojeong[虛靜]' and 'Cheonjin[天真]' came from this. Also, as the analysis result of the work, we could determine that the poem world such as monologue within the modest mind, reminiscence in the stage of living in easy retirement, pursuit for being content with one's lot, etc. was embodied in this esthetic background.

**【Key words】** Hong gwuidal[洪貴達], Heobaek[虛白], Heojeong[虛靜],  
Cheonjin[天真]

투고일 : 4월 20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